



전북대 창업지원단, 7개 창업기업 15억 투자 유치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이 7개 창업기업을 위해 15억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23일 전북대 창업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열린 '제9회 전북 창업대전'에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전북대학교 투자 IR 로드쇼'를 마련해 1차 투자역량 강화교육과 컨설팅, 2차 투자유치 IR 데모데이 및 IR자료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을 선별했다. 이번 로드쇼에서 참여한 도내의 6개 투자회사의 심사역이 10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실시, 참여한 기업 10개사 중 역량이 뛰어난 7개 기업에 최대 3억 원 등 총 15억의 투자 약속을 맺었다. 특히 호남권 창업중심대학 초격차 닥테크 분야 제조공정설비 아이템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유망기업 (주)에이에스케이(김태희 대표/창업중심대학 수혜기업)는 3억 원을, 전북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에서 직접 투자한 (주)메디엔리서치 이서형 대표/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창업중심대학 수혜기업)가 2억 7천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경수 단장은 "지원단의 투자유치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창업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달성해 보람을 느낀다"며 "더 많은 창업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양질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삼천초, 가을 저녁 영화산책 행사 개최

전주삼천초등학교(교장 김진)는 지난 22일 오후 학교 강당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가을 저녁 영화산책'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마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전주삼천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 시작 전 전주삼천초 사물놀이 동아리 30여 명의 공연과 5학년 이예란 학생의 해금 연주가 펼쳐졌다. 이후 사전 투표로 선정된 영화 '왕가'를 상영했다. 특히 완산경찰서, 119원산소방서, 삼천지구대 방범대원 등과 함께 효자시니어클럽, 전주삼천초 학부모회가 안전을 지원했다. 전주삼천초 우수원 학부모회장은 "우리아이들이 전주삼천초를 졸업하고 셋째가 재학 중인데, 개교 이래 처음으로 아이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학교에서 영화를 보며 행복하다"며 "도심에서 쉽지 않은 주민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등 학교마을 교육과정 운영과 아이들의 성장, 학교의 변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시기동 새마을부녀회, 밑반찬 나눔 봉사

정읍시 시기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2일 '밑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계육볶음, 깍두기 등의 밑반찬을 정성껏 마련해 전달했다. 또한 행복나눔 공유냉장고에도 직접 만든 밑반찬을 기탁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유점순 부녀회장은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김대환 기자

정읍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

정읍시는 지난 22일 평생학습관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교육지원청, 경찰서, 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필수 연계 기관 청소년업무 관계자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실적 공유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1명 선정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정은=김대환 기자

'지역에서 답을 찾다... 부안 청년 로컬라이프'

부안군, 2024 부안 청년포럼 개최... 4명의 청년들, 성공적 지역 정착 사례 발표

부안군은 23일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2024 부안 청년포럼 '지역에서 답을 찾다 부안 청년 로컬라이프'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부안 청년들의 로컬라이프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부안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청년들이 발제자로 나서 성공적인 지역 정착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안면 아노칸 라벤더 농장의 이진영 청년은 부안에서 라벤더 농장을 하게 된 계기와 현재의 활동, 미래의 마스터 플랜을 설명해주었고, 글로벌 수산기업으로 자리잡은 (주)봉선장의 이봉국 대표는 어업활동을 하며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노하우에 대해 발표했다. 부안에서 부시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의 권기호 대표는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실험적인 활동들과 로컬창업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격포에서 한식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인 불해안니네 서봉해 대표는 창업을 하며 겪은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지역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테이블별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부안 청년으로서 부안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 부안청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지역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각 테이블에서 제안된 정책제안 중 가장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을 선정하며 포럼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국무조정실 '지역특화 청년사업(청년날다II)'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포럼 개최식에서는 지역특화 청년사업 교육을 이수한 청년창업중 4개소에 현관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교육을 이수한 청년창업으로는 떡·디저트 카페 '새벽달', 플라워샵 '피크닉', 도예공방 '선세라믹스', 도시락·컵밥을 판매하는 '컵스잡잡', 예술공방 '두디아 하우스', 공예공방 '감미작업실'이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주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년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희수 의원이 제45회 흰지팡이날 감사장 받아



김희수 의원, 제45회 흰지팡이날 감사장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45회 흰지팡이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서 감사장을 받았다. (사)전북 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남희)는 "김희수 부의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마련에 앞장섰다"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였는데 헌신한 공로를 감사장에 담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희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의미있는 감사장을 받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이 큰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북 시각장애인연합회는 매년 10월 15일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흰지팡이날을 기념, 정서적 친밀감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협동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시각장애인 복지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2024 진안 상전면 망향제 · 향우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응답샘수몰로 고향 잃은 실향민들, 마음 나누며 위로하는 시간 가져

진안군 상전면(면장 김영기)은 지난 22일 상전 망향의 광장에서 '2024 상전면 망향제 및 응답샘 수몰민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전면은 2001년 응답샘 건설로 6개리 20여개 마을 1,000여 세대가 고향을 잃었으며, 수몰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해마다 망향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상전면 이장협의회(회장 안상용)가 망향제추진위원회를 맡아 주관하고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상전면에 연고를 둔 향우회와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기념식과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동창회 진안군의회 의장과 군 의원 등이 참석해 실향민들을 위로 했다. 특히 상전 망향의 광장에 세워진 망향비몽담 아래에서 상전면 출신 허호석 시인이 행사에 참여해 '물에 묻고 가슴에 묻고' 시를 낭송해 같은 슬픔을 가진 실향민과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함께 위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망향제 참석자들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이웃과 고향 선후배 간 정담을 나누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며 그치지 않는 빗줄기 속에서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아쉬움 속에 내년을 기약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상생의 길 묻다' ...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정책 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승용, 이하 진안교육지원청)은 23일에 진안교육지원청에서 '진안교육가족, 상생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안교육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진안교육지원청이 진안 관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민, 진안군청, 진안 관내 유관기관, 마을협의회, 마을활동가 등 관계자들과 주체로서 진안지역 학교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논의 및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북연구회 황영모 이사장은 '지방소멸의 위기, 농촌학교의 의미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과 함께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어 지역과 함께 특별 자문위원회 이미영 위원장을 좌장으로 토론회 6명이 주제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며, 청중과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교육지원청 송승용 교육장은 "학교와 마을은 진안교육의 주체로서 아이들을 함께 성장시키고, 마을의 배움터를 확장해 나가며,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진안에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지 벌써 여덟 번째를 맞이했다. 앞으로도 상생·협력·배움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진안교육 현안문제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여 현장 중심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가한 마을활동가는 "민·관·학이 함께 모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연계해 활성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며, "이번 포럼에서 학교,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진안교육의 미래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여 성장시키는 정책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요촌동 지사협, 취약계층에 물품 지원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만중)가 지난 22일 저소득 장수어르신 10명에게 포근한 이불을 지원하고 저소득 다자녀 20세대에게 달콤한 과일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사협은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관내 저소득 장수어르신 10명에게 겨울 추위가 오기 전 현이불을 갈고 새이불로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포근한 이불을 지원했다. 또,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저소득 다자녀 20세대에 지원해 가정에서 아이들이 맛있는 과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사협 위원인 이가네정육점(대표 이재호)의 후원으로 떡국떡과 한우1kg까지 푸짐한 선물을 지원했다. /김제=곽태 기자



장수경찰서, 협력단체 합동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는 자율방범대법 조직·인력 관리체계를 재정비 후 준법 조력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예방과 함께 협력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홍훈 서장은 23일 오전 8시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원영 경찰발전위원장과 장계자율방범대원(12명) 및 지역경찰관과 함께 장계사거리에서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운전자들에게 한 방패와 횡단보도 횡단판을 나눠주었다. 이날, 김홍훈 서장은 류정호 자율방범대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지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정신을 높이 사고 있다" 하면서 "우리 장수경찰서는 두루두루 안심자킴이로서 지역치안공동체와 상시 소통하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현장 체험의 날 개최

남원시는 지난 22일 대신면 운교마을에서 주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 체험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원버스 △건강부스 △체협부스△떡거리부스 등 4가지 분야에 1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20민원봉사대가 전기·가스·수도·보일러·농기계점검·수리, 이동빨래방, 청소, 갈갈이 등을 진행하여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특히, 최경식 남원시장은 마을 주민과 소통간담회를 통해 대신면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전기, 가스 등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현장봉사를 진행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남원소방서는 23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설시장 등 주요 상습 정체구간 일대에서 이루어졌으며, 길 터주기 홍보 방송과 길 터주기 방법 전단지 등을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 시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길 터주기 방법은 △(편도 1차로) 우측으로 이동해 일시 정지 △(편도 2차로) 긴급차량이 1차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이동해 서행 △(편도 3차로) 긴급차량이 2차로 주행할 수 있도록 1,2차로로 이동하면 된다. 김태성 대응총괄팀장은 "소방차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소방차 길터주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8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일실지사 010-9642-2725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삼천지사 255-2404 순천지사 632-0995 남원지사 536-3787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호지지사 010-8645-9935 익산지사 868-9923 고창지사 563-68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